

# 美 FCC, MVPD 유권해석 시도와 전망

방송통신진흥본부 방송통신기획부

## 1. 들어가며

## 2. 개요

- 2.1. MVPD 유권해석의 쟁점과 의의
- 2.2. 인터넷TV에 대한 FCC의 입장 변화 경위

## 3. 관련 플레이어별 예상 파급효과

- 3.1. 명암 엇갈리는 레거시(Legacy) 업체들과 인터넷TV 진영
- 3.2.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 요소
- 3.3. 핵심 비즈니스모델 변화 가능성

## 4. 시사점 및 국내 파급효과



요약문

美 FCC가 기존 유료TV업체를 지칭하는 다채널방송사업자(MVPD) 규정에 인터넷TV 서비스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료TV와 인터넷TV 간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TV가 MVPD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그 간 유료TV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실시간 TV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TV 확산은 고가 채널번들링에 묶여있는 기존 유료TV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 방송 시장의 경우 미국과 경쟁 환경 자체가 상이한 만큼 별다른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개인방송이나 웹드라마 등 온라인 동영상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유료TV 진영의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1. 들어가며

美 방송 시장이 거대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있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인터넷TV 서비스를 다채널방송사업자(이하 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VPD가 사실상 기존 유료TV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FCC의 이 같은 행보는 향후 인터넷TV와 유료TV 간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TV가 MVPD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그 간 유료TV만의 전유물이었던 실시간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한 인터넷TV로 인해 채널 언번들링(unbundling) 트렌드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차별화 경쟁력과 BM 주도권을 잃게 될 유료TV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내 방송 시장의 경우 미국의 정책 변화 흐름에 편승하고 있긴 하지만, 경쟁 환경 자체가 상이한 만큼 별다른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방송과 웹드라마 등 씨드파티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유료TV 진영의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 개요

### 2.1. MVPD 유권해석의 쟁점과 의의

1. 필름온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거물로 알려진 Alki David가 에어리오 보다 앞선 지난 2010년 런칭한 인터넷TV 서비스. 에어리오와 마찬가지로 재전송료 지불을 거부해 지상파방송사들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바 있음
2. 소니는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TV 서비스 'PS VUE'를 공식 발표하고 베타 서비스에 돌입함. 해당 서비스는 75개의 실시간TV 채널과 각종 VoD 콘텐츠는 물론 방송된 지 3일이 지난 인기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내년 3월 정식 런칭될 예정(출처: 케이벤처, 2014.11.13)
3. Verizon은 지난 5월 인텔의 인터넷TV 사업부문인 'OnCue'를 전격 인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경 OnCue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할 방침(출처: Gigaom, 2014.09.11)
4. 미국 위성TV업체 Dish Networks는 Disney, A&E Networks 등의 주요 CP들 손잡고 자체 인터넷TV 사업을 추진 중

지난 10월 FCC의 Tom Wheeler 위원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기술 진화, 동영상 그리고 미래(Tech Transitions, Video, and the Future)'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게재했다. 골자는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으로 동영상 콘텐츠 전송 기술에 따른 사업자 분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착안해 그는 인터넷TV를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즉 다채널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인터넷TV란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존 사업자 중에는 에어리오(Aereo), 필름온(FilmOn)<sup>1)</sup>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공식적으로 인터넷TV 사업을 추진 중인 소니<sup>2)</sup>, Verizon<sup>3)</sup>, Dish Network<sup>4)</sup>와 자체 TV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애플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TV가 가상(virtual) MVPD로 분류된다는 것은 곧 유료TV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쟁점은 인터넷TV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TV 재송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TV와 기존 유료TV 진영의 직접적인 경쟁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실시간 콘텐츠 수급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했던 인터넷TV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물론 Wheeler 위원장은 인터넷TV를 통한 실시간 콘텐츠 제공을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사업자들조차 all-IP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기술 방식에 입각한 기존 규제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럽 규제당국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송 방식, 즉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5. Sky Angel은 1980년 설립된 크리스천 전문 미디어 서비스 업체로 본래 위성TV 기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08년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전환한 바 있음(출처: 위키피디아)
6. 미국 방송법에 따르면 MVPD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TV 방송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다른 MVPD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Discovery의 주요 주주인 Liberty Media가 푸에르토리코의 케이블 사업자(MVPD)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Sky Angel이 MVPD라면 아무 제한 없이 Discovery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음

## 2.2. 인터넷TV에 대한 FCC의 입장변화 경위

인터넷TV를 MVPD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미국 방송 업계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08년 유료TV 채널인 Discovery와 당시 위성TV 업체였던 Sky Angel<sup>5)</sup> 간 논쟁이 그 시발점이다.

Sky Angel은 월이용료를 지불하고 Discovery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위성으로 전송해 왔으나 2008년 온라인동영상 기술업체 Neulion과 손잡고 셋톱박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Discovery 측은 기존 MVPD는 자사가 소유·통제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Sky Angel은 공중망(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MVPD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4월 콘텐츠 제공 중단을 발표했다.<sup>6)</sup> 이에 불만을 품은 Sky Angel은 자사가 MVPD인지에 대한 판단을 FCC측에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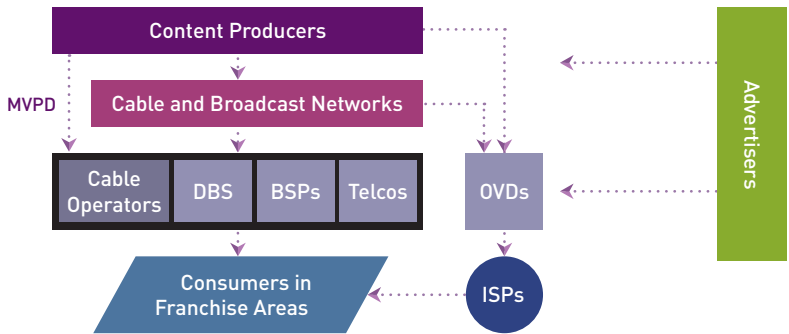
이에 FCC는 2012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재전송 규제 적용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TV서비스를 MVPD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 유료TV 업체들은 자체망을 보유하지 않은 동영상 플레이어들을 MVPD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된 논쟁 끝에 2012년 7월 FCC 측은 그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제14차 동영상 경쟁보고서(14th Video Competition Report)’에 반영했다. 이 보고서에서 FCC는 인터넷TV를 기존 미디어 외에 별도의 영역으로 새롭게 분류했는데, 즉 동영상 시장 플레이어로 기존 CP나 Broadcast Networks, MVPD 외에 인터넷TV를 의미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Online Video Distributors(OVD)’를 추가한 것이다.

7. DBS-Direct Broadcast Satellite; BSPs-Broadband Service Providers; ISPs-Internet Service Providers; Telcos-Local Exchange Telephone Companies

8. MVPD는 저작권법 제111 C항의 '전송조항(Transmission Clause)'을 적용받아 법정 기준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재전송 권리를 가질 수 있음. 그러나 C항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는 지상파 방송사와 별도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짐(출처: 전자신문, 2014.10.14)

그림1 현재 미국 방송시장 내 플레이어 구도<sup>7)</sup>



출처: Analysis Group

그러나 최근 이러한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ABC, CBS, Fox, NBC 등 지상파 방송사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에어리오가 FCC 측에 MVPD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에어리오는 소형 안테나에 기반한 지상파 '대리수신' 방식으로 재송신료 부담을 우회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자 기존 입장을 선회해 지상파와의 재송신 관련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에어리오는 보다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sup>8)</sup> FCC 측에 자사에 대한 MVPD 권한 부여를 요청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불과 2년전 인터넷TV를 OVD로 별도 분류키로 했던 FCC가 linear OVD 즉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인터넷TV를 가상 MVPD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FCC 현 위원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Wheeler 위원장이 제안한 MVPD 유권해석 제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11월 FCC가 상정한 아젠다에는 해당 제안안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현재 에어리오는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인터넷TV 서비스도 전면 중단한 상황이지만, 향후 FCC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면서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 3. 관련 플레이어별 예상 파급효과

#### 3.1. 명암 엇갈리는 레거시(Legacy) 업체들과 인터넷TV 진영

9. NCTA, "NCTA Statement Regarding FCC Proposal to Update the Definition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MVPD)", 2014.10.29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TV가 MVPD에 포함될 경우, 에어리오를 포함한 인터넷TV 관련 업체들이 수혜주로 부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방송시장 내 레거시 업체들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신규 플레이어 간 경쟁구도를 재편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연방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근2년 넘게 에어리오 측과의 법정공방에 시달려왔던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FCC의 MVPD 재정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inear OVD를 MVPD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인터넷TV 잠재 플레이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재전송을 통한 수익화 기회를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터넷TV가 MVPD 권한을 부여 받을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은 제대로 된 재전송료 협상을 해보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헐값'에 콘텐츠를 넘겨주어야 한다. 이미 유료TV 진영과도 재전송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잦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느는 셈이기도 하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콘텐츠 진영은 아직까지 FCC의 행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유료TV 업체들 역시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케이블 진영의 경우 NCTA(National Cable and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를 통해 FCC의 최근 행보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현시점에서 인터넷TV를 MVPD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들과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FCC가 지켜야 할 시장중립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sup>9)</sup>

사실상 linear OVD는 케이블TV와 IPTV를 포함한 유료TV 업체 측에 넷플릭스 등의 OTT 콘텐츠 애그리게이터들 보다 더 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일부 코드컷팅(cord-cutting)이나 코드쉐이빙

- 10. 케이블TV나 IPTV, 위성TV 등의 유료TV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거나, 프리미엄 상품에서 좀 더 저렴한 기본 상품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행위를 일컬음
- 11. 케이블TV의 경우 충분한 시장 경쟁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1999년 통신법에 의거 서비스 요금 관련 규제가 전면 해제되었으나, 가장 낮은 기본 요금(BTS, Basic Service Tier)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함. 또한 BTS 관련 규제에는 최소한의 콘텐츠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참고: 방통위, 2012.11)

(cord-shaving)<sup>10)</sup>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실시간 채널이 배제된 한계 때문에 유료TV의 보완재적 성격도 동시에 지닌다. 반면, 실시간 채널까지 모두 제공하는 인터넷TV의 경우 그야말로 유료TV에 대한 완벽한 대체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과 구글, MS, 소니 등의 메이저 IT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TV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유료방송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이미 넷플릭스 등으로 인해 가입기반 감소와 동영상 매출 하락 위기에 직면한 유료TV 업체들의 존립이 한층 더 어려워짐을 뜻한다.

### 3.2.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 요소

그러나 이처럼 FCC의 규제정책 변화가능성과 관련해 단순히 지상파 방송사나 유료TV업체 등의 레거시 플레이어를 잠재적 피해자로, 기존 인터넷TV 및 잠재 플레이어들을 수혜자로 양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분석일 수 있다. 즉, 양쪽 진영 모두 MVPD 재정의에 따른 위기와 기회 요소를 모두 안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인터넷TV가 가상 MVPD로서 기존 유료TV업체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다수 지상파 방송사들의 실시간 채널에 대한 must-carry와 재전송이 가능해지는 만큼 케이블TV나 IPTV와 직접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에어리오의 회생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며, 애플이 자체 TV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바이기도 하다. 또한 MS 역시 Xbox One 차기 버전에 실시간 TV 시청을 통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 서비스 강화에 나선 유튜브가 케이블TV의 직접적인 경쟁업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존 MVPD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 받음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즉, 광고 집행이나 콘텐츠 내용, 서비스 제공 요금<sup>11)</sup> 등에 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인 책임 사항(social compact)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최근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는 지상파나 유료

12. 미국의 아시아계 콘텐츠 유통채널인 Crunchyroll은 지난해 말 Chernin Group에 피인수되어 Otter Media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함

TV 업체들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운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TV와의 전면전을 위한 유료TV 업체들의 a-la-carte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脫번들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도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美 레거시 플레이어들의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추진 현황			
구분	업체명	세부내용	
유료 방송	케이블	Comc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내 유튜브 유사 OTT 서비스 테스트 완료 계획</li> <li>X1 박스, 스마트TV셋, 모바일 단말용으로 서비스 출시 예정(정확한 출시 시기 미정)</li> </ul>
	IPTV	Veriz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년 1월 인텔의 웹TV 사업부문 OnCue 인수</li> <li>'15년 중반 OnCue 기반 자체 OTT 서비스 런칭예정</li> </ul>
		A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년 4월 Chernin Group과 합작사 Otter Media 설립</li> <li>'14년 7월/9월 Creativebug와 Fullscreen 연이어 인수</li> <li>'14년 10월 Crunchyroll<sup>12)</sup>이 Soompi.com 통해 한국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런칭</li> </ul>
	위성	Direc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내 라틴계 OTT 동영상 서비스 Yaveo 출시 예정</li> <li>'14년 11월 Beln Sports, FOROtv 등 주요 스포츠 채널과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li> </ul>
		Dish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년 3월/8월 Disney, A&amp;E Network와 OTT 스트리밍 계약 체결</li> <li>연내 OTT 서비스 런칭 예정</li> </ul>
	CP	유료 채널	HBO
Star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실적발표에서 자체 OTT 서비스 런칭 가능성 시사</li> </ul>
Show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 HBO와 유사한 자체 OTT 서비스 런칭 예정</li> </ul>
지상파		C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5.99달러 수준의 OTT 서비스 'CBS All Access' 런칭 예정(인기 VoD와 로컬 실시간TV 스트리밍 모두 제공)</li> </ul>
		ESP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기 스포츠 리그 NBA와 손잡고 OTT 스트리밍 서비스 런칭할 계획</li> </ul>

출처: ATLAS



### 3.3. 핵심 비즈니스 모델 변화 가능성

Linear OVD를 포함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의 영향력 확대는 기존 유료TV 업계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채널 번들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의 온디맨드형 서비스에 열광하는 유저들이 급증하면서 수백개 채널을 고가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유료TV 번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료TV 진영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자체 OTT 동영상 서비스 출시에 뛰어드는 것은 물론 기존 TV스크린 중심의 동영상 서비스 BM을 번들링이 아닌 a-la-carte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美 위성TV사업자 DirecTV의 경우 채널 선택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컴캐스트와 TWC 등은 초고속 인터넷과 HBO Go, 실시간 기본 채널을 결합한 저가 상품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당국 측면에서도 유저 편의성을 고려해 사업자들의 탈번들링 비즈니스 모델 채택을 고무하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美 상원의원인 John McCain은 유료TV 업체들의 a-la-carte 요금 옵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FCC가 MVPD에 인터넷TV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실제 Wheeler 의장은 유저들이 기존 유료TV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그동안 유저들이 보지도 않는 채널에 가입해야 해 불만이 많았다면서 채널 번들링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인터넷TV가 이와 같은 구조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linear OVD에 MVPD 권한을 부여해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유료TV업체들의 탈번들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유저들에게 다양하면서도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4. 시사점 및 국내 파급효과

한편, 국내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의 경우 대체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 FCC의 MVPD 재정의 행보는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이 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유료TV 서비스 자체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저가 인터넷TV 서비스가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환경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에어리어나 필름온과 같이 낮은 가격에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도시 제로TV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유료TV 서비스 이용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 만큼 저가 인터넷TV에 대한 니즈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각종 모바일 단말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량이 늘면서 인터넷TV 활성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TV의 경우 지상파 DMB 등 무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외 온디맨드형 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상파와 유료TV 업체들이 자체 OTT 사업을 토대로 사실상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기반 개인방송인 아프리카TV가 실시간 스포츠 중계 등을 강화하면서 대중화를 꾀하는 한편,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까지 자체 동영상 서비스를 토대로 웹드라마 제작 및 유통에 나서면서 국내 방송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즉, 유저들이 동영상 소비를 위해 활용하는 단말과 서비스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만큼, 소비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과 내용도 점차 다양화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TV 시장 전반에 서비스 및 콘텐츠 혁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전송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자체 콘텐츠 제작 및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elco와 위성TV 진영의 경우 개인방송이나 포털 등과의 제휴를 토대로 콘텐츠 라인업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elco들의 유무선 결합상품에 따른 요금 인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 진영은 a-la-carte 비즈모델 도입 등을 토대로 경쟁서비스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Reference

---

1. Advanced Television, "FCC proposes updated MVPD definition", 2014.10.29
2.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able Industry Bites Nails After FCC Chairman Tom Wheeler's Anti-Bundle MVPD Pitch", 2014.10.29
3. BloombergBusinessWeek, "The FCC Wants to Let Aereo Become a Cable Service", 2014.10.28
4. FierceOnlineVideo, "Aereo urges FCC to expand MVPD definition, retrans rules", 2014.10.13
5. Broadcast Law Blog, "Will FCC Extend MVPD Rules to Online Video Providers – Including Retransmission Consent Fees and Program Access Rules?", 2014.10.06
6. FierceCable, "Sky Angel has FCC questioning definition of an MVPD", 2012.04.02